

베어링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2024-4063738호 (2024.12.02~2027.12.0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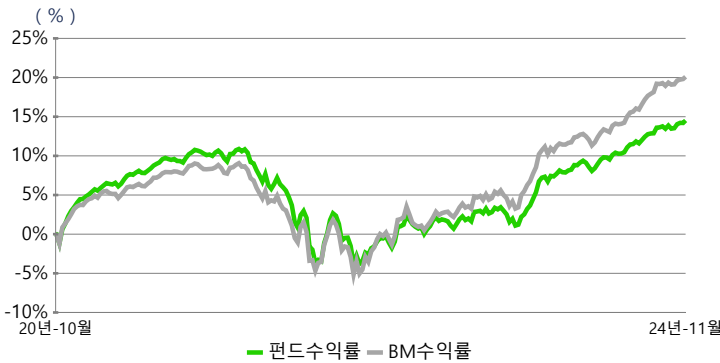
2024년 11월 30일

펀드 목적 및 전략

베어링 월지급 글로벌 하이일드 증권 자투자신탁[H]은 글로벌 투자적격 등급 미만의 하이일드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재간접 펀드입니다.

이 투자신탁은 북미 및 유럽지역에서 거래되는 투자적격등급 미만의 채권에 주로 투자합니다. 또한 10% 미만의 범위 내에서 투자등급 채권, 정부 발행 채권, 현금 및 유동성, 이머징마켓 지역 채권 및 운영 목적이 유사한 다른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. 이 펀드는 환율 변동 위험을 조절하는 환헤지를 실시합니다.

펀드 운용성과



* 최초 설정일이 2020.10.23인 Class C 수익률 기준입니다.
 * 운용성과, 수익률 그래프, 누적 수익률의 성과는 세전 수익률로 미래 운용 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.
 * 각 펀드 클래스의 보수 및 수수료 차이로 인해 운용 실적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.

기간별 수익률 (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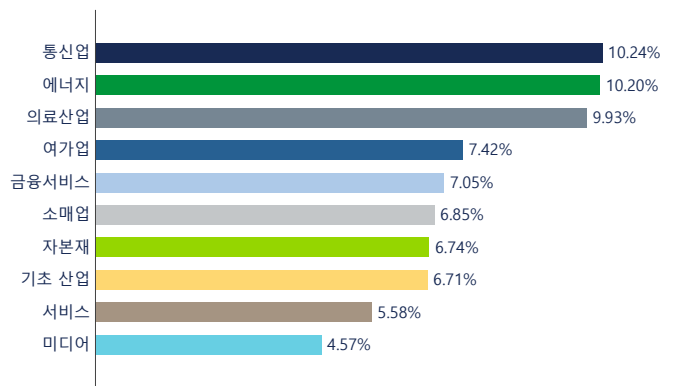
| 구분 | 1개월 | 3개월 | 6개월 | 1년 | 3년 | 설정이후 |
|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Class A | 0.78 | 1.56 | 4.54 | 9.68 | 4.78 | 14.52 |
| Class Ae | 0.81 | 1.64 | 4.71 | 10.04 | 5.82 | 16.23 |
| Class C | 0.75 | 1.47 | 4.36 | 9.31 | 3.69 | 12.91 |
| Class Ce | 0.79 | 1.60 | 4.62 | 9.85 | 5.26 | 15.40 |
| BM | 0.68 | 2.07 | 6.25 | 11.48 | 11.68 | 20.10 |

* 각 펀드 클래스의 보수 및 수수료 차이로 인해 운용실적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.

상위 10개 보유 종목

| 종목 | 구성비율(%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LifePoint Health | 1.58 |
| Regal Rexnord Corp | 1.39 |
| Citrix | 1.37 |
| Herbalife Ltd. | 1.29 |
| Radiology Partners | 1.26 |
| Walgreens Boots Alliance Inc | 1.14 |
| AlphaGen | 1.08 |
| Bausch Health Companies Inc. | 1.05 |
| CHS/Community Health Systems Inc | 1.02 |
| Royal Caribbean Cruises Ltd. | 1.01 |

상위 10개 업종별 보유 비중



* 업종별 보유 비중은 2024.10.31 기준입니다.

지역별 보유 비중

| 지역 | 구성비율(%) |
|-------|---------|
| 북아메리카 | 65.71 |
| 유럽 | 26.94 |
| 기타 지역 | 7.35 |

* 지역별 보유 비중은 2024.10.31 기준입니다.

신용등급별 보유 비중

| 신용등급 | 구성비율(%) |
|--------|---------|
| BBB | 7.96 |
| BB | 38.17 |
| B | 36.65 |
| CCC 이하 | 7.64 |
| 무등급 | 3.48 |

* 신용등급별 비중 / 신용등급별 보유 비중은 2024.10.31 기준입니다.

[투자시 유의사항]

- 투자자는 이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(간이)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.
- 본 투자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.
- 이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변동 등에 따른 투자원금의 손실(0~100%)이 발생할 수 있으며,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.
-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.

베어링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2024-4063738호 (2024.12.02~2027.12.01)

2024년 11월 30일

| 펀드개요 | |
|--|--|
| • 순자산* | 266억원 |
| • 기준가 | 887.52원 |
| • 펀드설정일 | 2020.10.23 |
| • 신탁업자 | 하나은행 |
| • 합성총보수·비용(연,%) | |
| 종류 C: 1.791 | (운용:0.15,판매:1,신탁/사무:0.04기타:0.601) |
| 종류 A: 1.443 | (운용:0.15,판매:0.65,신탁/사무:0.04기타:0.603) |
| 종류 Ce: 1.29 | (운용:0.15,판매:0.5,신탁/사무:0.04기타:0.6) |
| 종류 Ae: 1.113 | (운용:0.15,판매:0.32,신탁/사무:0.04기타:0.603) |
| • 투자위험등급 | 5등급(낮은위험) |
| • 선취판매수수료 | 0.070% (A), 0.350% (Ae) |
| • 후취판매수수료 | (S) 0.150 |
| ※ 클래스 S : 3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 0.15% 이내 | |
| • 환매수수료 | 없음 |
| • 환매대금지급기준 | 17시 이전 : 제4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제8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17시 경과 후 : 제5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제9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|
| • 벤치마크 | ICE BofA Non-Financial Developed Markets High Yield Constrained - TotalReturnHedgedUSD(T-1) X 90% + MMI_CALL X 10% |
| • 분배기준일 | 매월 20일, 다만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 영업일 |
| • 분배금 지급일 | 분배금은 분배기준일로부터 제5영업일에 지급 |
| 직전 회계연도 증권거래비용:종류 Ce(0.094%),종류 C(0.089%),종류 A(0.088%),종류 Ae(0.088%) | |

합성 총보수·비용은 피투자펀드 총보수·비용을 포함.

직전 회계연도 증권거래비용은 추정치를 사용하였기에 실제 총보수·비용 비율은 상이할 수 있음.

투자자 유의사항

- 이 운용보고서는 베어링자산운용에서 작성한 것으로 펀드 가입자의 상품 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,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
-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 권유를 위한 광고물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.
- 보고서에 제시된 내용과 의견은 당사가 신뢰할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자료의 정확성, 완전성과 공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
- 보고서의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으며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나 방법으로 내용의 무단복사, 사진복사 또는 복제될 수 없습니다.
- 증권거래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해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, 투자대상국가의 시장,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외화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의 경우, 환율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어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.
- 연금펀드의 경우, 중도해지나 연금 이외의 방법으로 수령 시 기타소득세, 해지가산세 부과 등 세제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과세율과 과세기준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소득공제의 기준 등은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며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.
- 하이일드채권 투자 시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원리금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이 크며, 이로 인하여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자산, 주요종목, 국가별 비중은 운용펀드 내 비중으로 작성되었습니다(모자형 펀드의 경우 모펀드 기준 산출).
- 월지급식상품은 운용결과에 따라 월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하는 경우 투자원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.



BARINGS.COM
베어링자산운용

[투자시 유의사항]

- 투자자는 이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(간이)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.
- 본 투자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.
- 이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변동 등에 따른 투자원금의 손실(0~100%)이 발생할 수 있으며,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.
-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.